

# “주물제품 공급 끊길라” 지역 산업계 비상

## 주물업계 “원자재값 폭등... 납품가 올려야”

### 기아차·삼성광주전자 생산라인 중단 우려

전국 240여 주물업체들이 지난 7일부터 자동차·생활가전 등에 사용되는 주물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아차 광주공장, 삼성광주전자 등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의 납품중단이 일부 생산라인 중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내 일부 주물업체들은 원자재 가격폭등에다 납품가격마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생산라인 멈춰 서나=9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으로 소요되는 주물제품의 경우 협력사별로 자체물량을 비축하고 있어 당분간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물업계의 납품중단사태

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생산라인이 멈춰설 수도 있어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반기로 나눠 두차례 납품가 인상을 한데 이어, 1·2·3차 협력업체들이 광주공장의 주물단가를 제대로 반영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어려움이 적지는 않지만, 이달 말을 기점으로 추가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광주전자도 냉장고·에어컨 등 생활가전의 핵심부품인 콤프레셔 제품을 주물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어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비축물량이 많지 않아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 조선사들과 공작기계 관련업체들도 주물업체들이 납품을 전면 중단할 경우 생산차질로 이어질 것에 대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주물 납품중단 왜 일어났나=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500여 회원사 중 240개사는 지난 7일부터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주물납품 중단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는 고철을 녹여 자동차·공작기계 등의 주요 부품 소재를 만든다.

광주 하남산업단지내 N사 대표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주물제품의 제조원가는 고철이 231.2%, 선철이 121% 올랐으나 주물제품 가격은 같은 기간동안 20~30% 인상에 그쳤다”며 “이에 따라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라고 말했다. 선반공장 등에 쇳물을 공급중인 광주 송암공단내 C사 관계자도 “1kg당 납품가격이 최근 5년동안 950원 선에 묶여 있었다”면서 “거래업체가 최근 1천300원으로 올려준다고 했으나,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이들 광주·전남업체를 포함한 전국 주물업계는 “거래기업들이 납품단가를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물제품을 사들이는 대기업 협력사들도 고민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촌공단내 H사 대표는 “지난해 1kg당 920원 하던 반가공제품 가격을 올해 1천150원으로 25%나 올렸으나, 주물업체들의 추가 인상요구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대기업 납품단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상승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물제품가격을 무작정 올려줄 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봄 구두의 유혹

광주신세계백화점 3층 구두매장에 화려한 색채와 과감한 장식이 돋보이는 맥시멀리즘 제품들이 선보여 봄채녀들을 유혹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6월부터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완화 지방 주택시장 훈풍 불까

### 침체된 투자심리 회복 주택경기 활성화 기대

오는 6월부터는 광주 등 지방 도시의 공공택지내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크게 완화돼 지방 주택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완화조치는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폐지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올 6월까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지방 주택시장이 다소나마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수요자

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경우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에 불씨를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등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내 주택은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어 왔으며, 공공택지 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각각 5년(85㎡이하), 3년(85㎡초과)간 매매가 제한돼 시장회복에 적잖은 걸림돌이 돼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에 대한)전매제한 완화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지방 주택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큰 폭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매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당분간 지방시장의 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미분양주택 폭증 등 지방시장의 침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전매제한기간 완화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 등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순차적으로 해제했지만,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최근 12만가구를 넘어 실망 시장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치영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광주 등 지방 주택시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지방 시장 회생을 위해선 민간·공공택지 모두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등 차별화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은행 새 근무복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최근 디자인 품평회를 열고 여직원들의 근무복을 선정했다. 이 근무복은 오는 5월부터 2년간 착용할 예정이며, 지역 피복업체가 50% 이상 제작을 맡게 된다. <광주은행 제공>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사과·배 등 7개 품목 이달말까지 판매

사과·배 등 주요 과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이달 말까지 판매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뽕은감 등 7개 본사업 품목은 이달 말까지 일선 농협 및 품목조합 창구를 통해 판매된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밤·참다래·자두는 오는 6월까지, 올해부터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감자·양파·콩·고추·수박 등 5개 품목은 4월부터 11월까지 판매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과수원 면적 1천㎡ 이상으로 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전남도는 보다 많은 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가부담 보험료 중 20%정

도를 지방비(13억7천만원)로 지원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실제 부담액은 지역과 품종에 따라 5천㎡당 적게는 5만5천200원에서 많게는 85만3천600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품목별 농가 부담금은 ▲사과의 경우 5천㎡당 보험금은 21만200원으로 이중 농가는 75만5천835원(40%)을 부담하고 ▲배는 213만원 중 85만3천600원 ▲복숭아는 13만원 중 5만5천200원 ▲포도는 20만원 중 8만3천160원 ▲단감은 54만원 중 21만125원 ▲뽕은 감은 55만원 중 22만320원 등을 각각 부담하면 된다. /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來光

### 지역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한국무역협회 이희범(사진) 회장이 광주를 방문, 광주전남 무역업계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만)에 따르면 이 회장은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03호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무역업계 간담회’를 주재, 업계의 애로현황을 파악하고 지방무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박춘근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김두기 광주본부세관장 등 유관기관장과 김국용 광주·전남무역상사협의회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무역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시 ‘노인 일자리’ 4천개 만든다

광주시가 10일 ‘일하는 노인 전진대회’를 갖고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62억원을 투입, 노인 4천100여명에게 기

초질서 관리와 환경정비 등 일자리를 제공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유형은 공익형(불법 광고물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교육·복지형(금문화해설, 노인돌봄비), 자립·지원형(상품

제조, 시험감독관) 등 3개 부문이다. 자치구 별로는 북구 430명, 서구 370명, 광산구 330명, 남구 320명, 동구 240명이 배정됐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7개월 동안 매주 3일씩 1일 3~4시간 일하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문의 062-613-3271~75. /윤영기기자 penfoot@

**(주) 조이트레블**  
 광주광역시 남구 동남로 3가 17번길 20  
 대표 전화 (062) 234-3222

1인실 (1인용 침대) / 1인용 화장실 / 1인용 욕조 / 1인용 에어컨 / 1인용 냉장고 / 1인용 세탁기 / 1인용 TV / 1인용 에어컨 / 1인용 냉장고 / 1인용 세탁기 / 1인용 TV	309,000
2인실 (2인용 침대) / 2인용 화장실 / 2인용 욕조 / 2인용 에어컨 / 2인용 냉장고 / 2인용 세탁기 / 2인용 TV	319,000
3인실 (3인용 침대) / 3인용 화장실 / 3인용 욕조 / 3인용 에어컨 / 3인용 냉장고 / 3인용 세탁기 / 3인용 TV	359,000
4인실 (4인용 침대) / 4인용 화장실 / 4인용 욕조 / 4인용 에어컨 / 4인용 냉장고 / 4인용 세탁기 / 4인용 TV	399,000
5인실 (5인용 침대) / 5인용 화장실 / 5인용 욕조 / 5인용 에어컨 / 5인용 냉장고 / 5인용 세탁기 / 5인용 TV	520,000
6인실 (6인용 침대) / 6인용 화장실 / 6인용 욕조 / 6인용 에어컨 / 6인용 냉장고 / 6인용 세탁기 / 6인용 TV	569,000

**황산위에서 3억 이상을 특가!**

**강력추천 중국 황산(黃山) 여행!!**

상해 / 항주 / 황산(黃山) / 서녕 5일  
 689,000

★김금무늬★

**황산위에서의 하룻밤!!**

상해 / 항주 / 황산(黃山) / 서녕 5일  
 649,000